

# 인텔리전트 빌딩 기술의 특집을 내면서

박 귀 태

(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박사)



오늘날 반도체 산업을 비롯하여 전자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곧 도래하게 될 정보화 사회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빠르게 입수하여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부가가치를 갖는 정보가 첨단정보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피스 환경도 전통적인 일반

빌딩보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적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첨단 정보 빌딩 즉 인텔리전트 빌딩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첨단 정보 빌딩 또는 지능형 빌딩이라 불리어지는 인텔리전트 빌딩이라는 말은 미국의 UTBS사가 미국의 코네티컷주 하트포드에 건설하여 1984년 1월에 완성된 시티 플레이스에서 그 특징을 선전하는 의미로 처음 사용하였다. 그후 인텔리전트 빌딩의 개념은 아직 정형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 교환기 및 종합 영상 시스템을 이용한 첨단 정보 통신 기능, LAN과 같은 다양한 기기에 의하여 네트워크화된 고도의 O/A기능, 빌딩관리 시스템, 에너지 절약 시스템, 시큐리티 시스템을 통합한 빌딩자동화기능 그리고 지적 창조작업에 알맞는 쾌적한 건축환경을 겸비한 빌딩으로 정의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인텔리전트 빌딩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등이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거나, 홍보차원에서 자사 빌딩을 인텔리전트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주로 입주자 공용 서비스 즉 입주자로 하여금 통신, 사무기기, 그리고 컴퓨터가 결합된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공용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다.

국내 인텔리전트 빌딩은 일부 대형 건물에 BA, OA기능을 중심으로 한 인텔리전트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BA, OA, TC가 통합된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의 일부 대기업과 시스템 관련 업체에서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참여를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통신의 경우 서울 전자 교환 운용 연구단 건물을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구축하였고, 신도시(분당, 일산) 정보 통신 센터등의 자사 건물을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여의도의 동남증권, 일원동의 삼성의료원, 대치동의 포항제철 POSCO-21빌딩에 이어 한국 이동 통신의 사옥도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추진중에 있는 등 본격적인 인텔리전트 빌딩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인텔리전트 빌딩의 역사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장족의 발전을 해 온 것이 사실이나 또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인텔리전트 빌딩 기술은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통신 시장과 건설 시장의 개방으로 기술과 자본력면에서 앞선 외국의 인텔리전트 빌딩산업이 국내시장에 들어온다면 국내 인텔리전트 빌딩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 인텔리전트 빌딩 기술의 특집을 통해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한다. 이 특집을 계기로 관련 학계와 업계 그리고 정부 관련 부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외국 건설 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국내 인텔리전트 빌딩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끝으로 이 특집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적극 협력해 주신 집필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